“여기 참 삶의 길이 있습니다…법보시 함께 하세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백화점 등 상가가 몰려있는 시내 번화가는 화려한 불빛과 물건으로 넘쳐나지만, 뒷골목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문득 눈에 띈, 신문에 담긴 한 줄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으로 격려를 받고, 난관 극복의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이 담겨있는 신문과 불서를 보내는 ‘법보시 운동’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불교’ 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되고 불우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97년 6월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기 어려운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 시설 등에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법보시 운동은 동참하는 이에게 보시 공덕 중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할 것입니다. 법보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귀한 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할 것입니다.

“좋은것 이웃들과 나눴을 뿐”

본지 창간호부터 법보시 하는 임옥빈 씨

“그냥 좋은 것을 이웃들과 나눈다는 생각으로 ‘현대불교’를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땐데요, 한번은 아는 학부형에게 ‘현대불교’를 법보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분도 <법공양>이란 소책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법보시하고 있더라구요. 역시 불교는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과 남편, 두 아들의 이름으로 법보시하고 있는 주부 임옥빈(서울 은평구 불광동·48세) 씨. 중학교 국어교사를 하던 임 씨는 자신의 ‘현대불교’를 받으면 ‘가까이에서 뵌 큰스님’을 맨 먼저 읽는다. 또 신문을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없다.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불자라는 것을 안 후에는 보고난 후 꼭 경비실에 놓아둔다.

임씨는 ‘현대불교’를 받으면 ‘가까이에서 뵌 큰스님’을 맨 먼저 읽는다. 또 신문을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없다.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불자라는 것을 안 후에는 보고난 후 꼭 경비실에 놓아둔다.

“현대불교를 8년 동안 보면서 점점 다양화 되어가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신문에서 사람들이 보시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만화 같은 것을 실어줬으면 해요.”

읽고난 신문도 돌려보게 아파트 경비실에…

식이나 남편이 속 썩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살맛이 안 나던 중 직장동료가 건네준 불교 관련 소식지를 보고 불교에 입문했다. 시댁이 불자집안이긴 했지만 예전엔 종교를 구속으로 생각하던 터였다.

‘현대불교’ 창간독자이기도 한 임씨는 ‘현대불교’를 보면서 더 불교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한 번은 남편이 ‘그러다가 출가하는 것 아니야?’ 농담을 할 정도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교사를 그만둔 임씨는 요즈음 화요일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리는 초서 강좌를 수강하고, 목요일에는 동양고전연구소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비평론 자료집을 공부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불서 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임옥빈 씨는, ‘현대불교’를 법보시하는데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 5백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422부의 신문이 군장병·교도소 수형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9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고객부로 전화 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법보시 후원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한빛은행 082-090001-13-70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법보시 받는 단체·시설

구 분		발송처	보시 부수	보시 부수 누계
군부대	군법당	378	423	77,808
	국군병원	9	11	9,556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28	207	51,334
	구치소, 감호소	12	45	18,226
	소년원, 감별소	16	48	8,112
복지단체	양로원	24	24	6,596
	아동복지시설	26	26	10,146
	장애인복지시설	11	11	4,396
	청소년복지시설	16	16	6,162
	사회복지기관	138	138	53,198
	불교병원	9	61	17,467
경찰	경승실	188	188	62,948
	경찰병원	2	6	1,596
지정법보시	단체	141	163	40,287
	개인	55	55	22,270
총계		1,053	1,422	390,102

불서 법보시 합시다

현대불교신문은 법보시와 더불어 도서 법보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동안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자체적으로 도서 법보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도서 법보시를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고루 부처님의 법음이 전달되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도서 법보시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 및 단체의 참여와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단체의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도서 법보시 동참자 모집: 개인 및 단체가 보관중인 불서의 보시를 원하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소중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서가 필요하신 단체 접수: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단체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책방 여시아문 대표(02)737-0695 팩스(02)737-0696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후원자

간종흡 김영자 강갑순 강경중 강대덕행 강덕순 강말숙 강명자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북복지관 강성욱 강수
대 강수천 강숙희 강순영 강신옥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윤수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인 강정화 강정훈 강정희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태화 강현숙 강황진 경남
지원 경순자 계미영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옥영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고헌사
공덕화 공평근 곽동희 곽만열 곽명순 곽영호 곽우진 곽중경 구길자 구본준 구수연 구영란 구은지 구진모 구진
화 구진희 구필회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두상 권명수 권명아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상원
권성행 권순 권순령 권순혁 권연지 권영상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웅 권오응 권오진 권옥숙권옥순 권윤중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초지 권춘순 기현정 김가영 김갑순 김강산 김건옥 김경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열 김경옥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경 김규
성 김규순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성 김기춘 김길옥 김길운 김나령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남영
김담순 김대현 김덕애 김덕임 김동숙 김동자 김동찬 김두영 김들남 김득자 김록인 김말선 김명덕 김명란 김명
옥 김명자 김명화 김명훈 김명희 김문자 김문종 김문주 김미란 김미래 김미명 김미선 김미순 김미연 김미옥
김미정 김미진 김민수 김민옥 김범수 김병서 김병일 김병주 김병철 김병훈 김복남 김봉란 김봉애 김봉윤 김봉
해 김비연 김상규 김상규 김상덕 김상림 김상병 김상분 김상순 김상호 김서분 김석교 김석순 김석용 김석자
김선남 김선아 김선영 김선화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옥 김수
정 김수희 김숙랑 김숙자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령 김순분 김순식 김순옥 김순자 김순현
김순희 김승수 김승재 김승지 김시열 김식자 김신영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
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염순 김영란 김영란 김영만 김영만 김영배 김영범 김영삼 김영석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임 김옥 김옥경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완순 김외선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순 김용준 김용철 김용호 김원배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월용 김유학 김윤관 김윤남 김윤
성 김윤자 김윤중 김윤환 김윤희 김은세 김은식 김은영 김의식 김의종 김인성 김인숙 김인태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장복 김재철 김정덕 김정란 김정렬 김정선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원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
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 김종미 김종보 김종애 김종옥 김종일 김종필 김종훈 김주곤 김주식 김주원 김주현 김
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지헌 김지혜 김지환 김진근 김진선 김창수 김철수
김춘자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치훈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학수 김한나 김헌 김현수
김현숙 김현우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창 김형철 김형태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호종
김홍조 김화남 김화수 김환수 김효래 김효례 김효성 김효숙 김희남 김희손 김희수 김희순 김희주 나관숙 나귀
례 나무군 나숙희 나순옥 남국현 남선자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정애 남철수 남하자
노만호 노선헌 노성일 노순남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덕성암 덕운화 덕형관 도옥희 도재권 도
태순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재규 류정님 류정로 류정숙 류정오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명재한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선희 문숙자 문순조 문재근 문점숙 문정강 문정희 문필금 문필
수 문형주 문화자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성곤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민하식 민혜원 바로보인 박강숙 박경남
박경래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경옥 박경자 박경진 박경화 박경환 박공임 박광수 박광용박광호 박구
숙 박귀남 박금숙 박기규 박기순 박기정 박길순 박남순 박남옥 박내순 박달화 박대섭 박득수 박만규 박말수
박명의 박무순 박무주행 박문선 박미경 박미정 박배훈 박병옥 박병주 박보성 박복자 박봉기 박봉순 박봉주 박
분름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선애 박선영 박성례 박성수 박성준 박성준 박성진 박세광 박수영 박수진
박숙경 박숙자 박순덕 박순득 박순애 박승희 박신근 박신영 박양임 박양자 박연숙 박연신 박영미 박영석 박영
숙 박영신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영진 박영철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옥이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원희 박윤기 박윤식 박은미 박은숙 박은주 박익형 박인서 박인선 박장미 박재련 박재윤 박재진 박정산 박정
숙 박정자 박정하 박정희 박제원 박종두 박종실 박종원 박주연 박주원 박주찬 박준영 박준형 박준호 박진우
박진현 박진환 박징자 박찬 박찬연 박천해 박철수 박청길 박청자 박춘봉 박춘자 박태규 박태수 박필원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박화자 박화재 박희순 발형채 방금순 방
명섭 방순자 방순학 방재순 배경숙 배광훈 배동금 배명호 배병진 배복희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춘자 배현옥
배현주 백길수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옥남 백유선 백준기 백현기 백혜민 백혜원 법현스님 변미자 변영희 변
인택 본원보시함 본원봉사모임 본원신도 본원영등포 본원익명 봉철웅 봉현주 부산신도회부산지사 부산지원
분경희 사당5동법회 사랑방 상미옥 서경자 서경자 서귀연 서귀희 서덕교 서말자 서말희 서명선 서미옥 서병
학 서봉순 서부웅 서삼조 서성학 서순덕 서영주 서예숙 서옥경 서울월곡 서원석 서윤아 서의숙 서인교 서재영
서정숙 서준 서진 서춘건 서충우 서태승 서형관 석영수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경순 성동환 성명숙 성묘경 성민자 성영분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소진임 손광자 손금화 손명숙 손문
엽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순옥 손영실 손을선 손인아 손인화 손정숙 손정자 손진임 손혜숙 손화자 송경자
송광옥 송규환 송근정 송동호 송미숙 송미애 송방준 송복희 송석원 송성빈 송성의 송승현 송양숙 송연숙 송연
희 송영근 송영애 송유정 송인영 송재업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남선 신미향 신미환 신복순 신상균 신상섭
신성희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시균 신영준 신영찬 신원민 신윤진 신장재 신재락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진
임 신진임 신택건 신현순 신혜경 신호용 신홍재 신희순 심 경우 심공희 심광엽 심근회 심능회 심단회 심만회
심묘회 심법회 심보회 심성학 심숙희 심안회 심영애 심원식 심원회 심일회 심춘자 심향회 심희주 안병노 안병
윤 안성모 안순옥 안연미 안영근 안영선 안은희 안재연 안진후 암영애 양기철 양병덕 양석호 양세욱 양연희
양영모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재호 양점순 양준원 양태환 양흥용 어종선 엄남주 엄정임 여태순 염흥수 영등
포법회 영재한 오강호 오광자 오동구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덕 오병현 오보광명 오분례오상숙 오
선희 오성종 오세철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승훈 오영자 오영희 오정애 오종근 오주중 오주희 오지은 오진희
오창원 오창임 오창희 오하규 오헌승 오현규 오현자 오현희 오형만 오형희 오희숙 옥영식 용산구법회 용환응
우경애 우금식 우동렬 우상용 우지예 울산한마음 원영자 원정옥 유광수 유금열 유금자 유미양 유보향 유선재
유양상 유영미 유은경 유인묵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유종옥 유지호 유진옥 유춘수 유춘자 유호성 육성희 육성
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석 윤기수 윤기원 윤기홍 윤미형 윤미희 윤병찬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 윤순이 윤
여형 윤영수 윤영숙 윤영자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정연 윤제학 윤종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차남 윤창섭
윤춘매 윤춘희 윤태원 윤향숙 윤현숙 은경애 이강희 이건우 이건주 이경남 이경민 이경봉 이경숙 이경아 이경
애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경주 이계선 이관형 이광희 이교재 이구자 이군자 이귀숙 이규대 이규만 이규환
이근기 이금순 이금주 이기수 이기오 이기철 이길복 이길순 이남심 이노마 이단식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동
주 이동준 이동희 이명규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자 이명준 이명훈 이명희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미정 이번택 이범규 이병진 이병태 이보경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순 이복임 이봉순 이봉우 이봉
호 이부양 이분순 이산궁 이삼경 이상란 이상옥 이상윤 이석원 이석준 이선임 이성수 이성재 이송자 이수영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덕 이순량 이순복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화 이순희 이승숙 이승
은 이승훈 이신궁 이신정 이신호 이아리 이애자 이양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규 이연옥 이영경 이영란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이옥순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왕진 이용범 이용진 이우
승 이우진 이우환 이운자 이원상 이유순 이윤옥 이은구 이은숙 이은주 이은진 이은화 이의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연 이장혁 이재국 이재숙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리 이정수 이정숙 이정
순 이정자 이정학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섭 이종숙 이종진 이종철 이준만 이준석 이준섭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웅 이지은 이지형 이진경 이진선 이진수 이진영 이진우 이진철 이창연 이창
운 이창하 이창호 이창훈 이천희 이철규 이철주 이청 이춘근 이춘정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희 이판순 이
필순 이한득 이한숙 이한희 이한희 이해섭 이향미 이혜옥 이현경 이현규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현호 이형신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화영 이화주 이효순 이훈로 이희숙 인천신행회
임경희 임금지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문숙임선원 임선희 임소연 임영애 임영이 임옥빈 임옥재 임완숙 임용
식 임용호 임우식 임인석 임재순 임정숙 임종구 임종미 임창건 임채임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형준 임호신
임홍민 임효정 임흥빈 임희자 자)서울월곡 장금강심 장미 장미순 장미욱 장성윤 장세승 장영남 장영순 장영찬
장왕자 장재원 장정 장정가족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태복 장해기 장현만 장현식 장혜선 전갑일 전계
연 전계영 전규백 전류정 전병임 전병제 전복순 전삼우 전수남 전수지 전순자 전순조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신 전유정 전은희 전인성 전인영 전인호 전정숙 전정순 전정애 전정회 전진희 전현수 전현
진 정건재 정계영 정고비 정구순 정규열 정금관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동순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향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성환 정수자 정숙남 정숙점 정숙정 정순
자 정심화 정연경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영신 정옥녀 정옥찬 정옥화 정운경 정윤옥 정윤채
정은경 정의진 정인순 정인실 정정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순 정정자 정정희 정준호 정진욱 정차효 정창래 정픽
준 정필수 정필순 정필준 정하석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재 제숙희 제주보훈회 조경숙 조경자 조공
옥 조공옥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동만 조명래 조명숙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봉호 조분옥
조상호 조성국 조승근 조승우 조야식 조양자 조영숙 조옥순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조인
규 조인자 조정현 조정훈 조진한 조칠제 조해연 조현애 조혜순 조혜연 주경숙 주영란 주우순 주인공 주정숙
주정옥 주현순 주희숙 지경애 지로봉사모임 지순임 지연옥 지영화 지유미 지인회 지정인 지혜선 진갑임 진경
상 진경수 진광현 진말련 진병웅 진수남 진영숙 진영화 진옥례 진욱상 진원중 진재영 진정임 차동호 차민영
차상환 차수항 차용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미희 천병길 천복연 천상봉 천양우 천재경 천현숙 천화
조 청주교도소 최경근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금철 최동예 최만례 최명희 최미숙
최미현 최범순 최병도 최병언 최병조 최병준 최복내 최복섭 최복순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
대 최성휴 최수현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우수 최윤정 최은희 최인숙 최인자 최재두 최재철
최정근 최정기 최정림 최정문 최정민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주현 최준성 최준영 최진봉 최하규 최하우 최행
규 최행선 최현민 최현주 최형선 최혜라 최호자 최효자 최희원 추혜희 태국지원 태순덕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미경 하미희 하석남 하선희 하성호 하숙진 하순애 하순임 하은영 하재웅 하재한 하정숙 하정희 하혜경 하흥
용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불교한기능 한기선 한기영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방근 한병
소 한상현 한수화 한숙희 한순예 한순옥 한순자 한승찬 한아름 한양자 한영숙 한영찬 한윤경 한은섭 한인식
한임련 한정석 한정선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화윤 한효심 함광점 함광접 함기석 함명익 함삼수 함영숙 함지
윤 허명희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의숙 허재승 허재영 허점자 허점자 허정남 허정훈
허종환 허찬웅 허찬응 허학연 허희숙 현미숙 현불회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호소희 홍경욱 홍명숙 홍
민자 홍병숙 홍소순 홍순아 홍순일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홍일표 황경숙 황금철 황기용 황논철 황문희 황순수
황순심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옥자 황용숙 황인형 황점숙 황정옥 황창영 황태숙 회복내